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, 도시철도 침수피해 예방 현장점검

- 물막이시설(차수판)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점검 -

-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강희업)는 6월 14일(금) 오후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도시철도 7호선 이수역 현장을 방문하여 노면출입구와 환기구 구조물의 물막이시설 등을 점검하였다.
 - 오늘 방문한 이수역은 저지대 상습침수 지역으로 제작년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천장이 붕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자체 비상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여 재난예방 개선책을 마련하였다.
 - 근무자들은 빗물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면구간에 차수판을 설치하는 것과는 별도로 출구 앞에 차수판을 추가로 설치하고, 신속한 배수를 위해 위치 표시된 빗물받이에서 배수 작업을 시연하였다.
- 강희업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관제·영업·차량 각 분야별 침수피해 대응체계를 보고받고, 올해는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찾아오고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“극한호우”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된 만큼,
 - 운영 중인 도시철도 역사를 전수조사하여 출입구 지반고가 낮은 침수 가능지역은 규격에 맞게 1m 이상의 차수판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.
 - 아울러, 과거 이수역이 침수 피해가 컸던 이유가 인력 부족으로 짧은 시간에 비상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지적하며 폭우가 예상되면 차수판을 출입구 근처로 미리 이동하여 동선을 최소화하고 현장근무 인력을 평상시보다 늘리는 등 상황에 맞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.

2024. 6. 14.

국토교통부 대변인